

오체투지 (중)

최현숙(서울 서초구 양재동)



그림 · 문병성

오체투지 십만배 수행은 올 여름 내내 진행되었다. 1000배를 하는데 대략 3시간이라고 계산한다면 그간 나는 무려 300시간을 절을 하며 보내는 것이다.

난 그 시간을 '내부수리'라고 부른다. 내부수리기간 300시간. 그 동안 눈, 귀, 코, 혀, 촉각과 의식의 육근에 집중하여 그 기관에 닿는 여섯 가지 대상의 12경계를 살다거나 좋다는 편견 없이 받아들여 내면의 깊은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내 육체와 마음의 주인공을 뒤에서 조정해가는 '보이지 않는 뒷자리의 운전자(Back Seat Driver)'가 누구인지를 주목하기로 했다. 내가 수행을 안 하면 뒷자리 운전석에 전생의 입이 들어앉아 압력(策力)대로 살다죽는 삶을 살아갈 테고, 수행을 잘해서 신구의 삼업을 스스로 조절해 간다면 원력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마음으로 되뇌었다.

매일 1000배씩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1만배를 채울 때마다 마음에 둔 사람을 찾아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감사히 회향했다.

마음에 둔 절은 16년 전 지장기도를 시작할 때 다닌 칠원 심원사인데, 그 때의 절박했던 심정을 기억하고 상황이 이렇게 변화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만배 오체투지를 마치는 날까지 다니겠다고 서원했다. 16년 전,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발원대로 심원사 안의 천불전에 한분을 모시게 돼 내게는 더 의미 있는 사람이다.

조용한 빈 밤에 홀로 좌복을 깔고 절을 하면 한편의 필름처럼 지난날이 휘리릭 뇌리틀 스쳐간다. 지난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던 것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 아니, 부처님을 만나자 지난 과거생의 악업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불심도 약하고 지혜도 없던 나는 과거업

의 급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맥을 못 추며 허우적거렸다. 심원사를 찾아 지장보살기도를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1990년 여름이었다. 작은딸이 4살 때였다. 당시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사업하겠다고 고향인 목포로 혼자 내려갔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다 쓰고도 사업이 일어서지 않자, 남편은 아내인 내게 상의도 없이 친정어머니와 형제들의 돈을 빌려다 썼다.

나는 남편 대신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낮에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살림을 꾸려가

찾아간 적도 있지만 타인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편 역시 똑같이 무모해서 설득이 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악몽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두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비록 혼자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길 뿐이었다.

내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마음먹고 가정방문교사, 번역, 가게운영, 유치원 교사 등의 일을 닦치는 대로 맡아서 집안을 꾸려나갔다.

너무나 힘든 날이면 "두 딸이 커서 사회

마련인지 그 스님의 절로 놀러갔던 나의 재적사찰 스님이 그곳에서 남편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 스님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알려줘서 찾아왔다 했다. 꼭 한번 와서 남편을 만나보라는 그 스님의 말을 듣고 그 절을 찾아가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여자까지 만나게 되었다.

"뭘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냐"며 따지는 남편과 여자에게 "나야 말로 묻고 싶은 질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 여자는 당돌했다. "차라리 감옥이라도 집어넣으려면 놓으라"식의 말을 쏘아댔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부양의 책임이 있으니 형편 되는대로 양육비는 보내달라"는 내 의견에 그 여자는 오히려 "아버지가 능력 없으면 엄마가 딸아 자식을 길러야지"하며 기세가 등등했다.

턱수염까지 도인처럼 기른 남편은 입만 폭 다물고는 부동자세였다. 그날 밤에 자신들의 거처로 날 끌고 가서 양육비에 대한 답판을 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절의 스님은 날 그대로 내 보내면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이 보살님은 내 손님으로 왔으니 두 사람은 그만 가지오"라며 그 둘을 보냈다.

그 일을 끝으로 서울로 올라온 바로 나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작정하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놓았더니 증오심도 적어졌다. 어린 아이들에겐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가 대신 너희들을 사회인이 될 때까지 학교도 보내고 맡아서 보살필 거야. 생활이 넉넉지는 않겠지만 힘들다고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거야"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난 16년간 지켜왔다.(계속)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이혼 결정

악몽같은 나날...닥치는대로 일하며 기도

"힘들지만 잘 키우리라" 아이들과 약속

며 육아를 담당했다.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한다지만 남편조차도 낮은 목표에는 내가 일지리를 찾을 기분이 없었기에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갈 순 없었다.

2년을 그렇게 지내는 사이 갑자기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왔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에 있었다. 3년을 억지로 사업을 이끌면서 한때는 동업자였던 사람들과도 재무를 지게 되자 그 사람들로부터 몰래 회사 관계 서류를 빼돌려 내연녀와 둘이서 이리저리 숨어 다녔다.

결국 남편은 내연녀의 집에서 발각 되었다. 그렇게 사업이 파탄나자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대신에 아내인 나를 원망하고는 아이들까지도 버린채 그 여자를 택했다.

그 외중에 나와 친정동생은 회사채무보증인으로부터 빠져야하는데도 남편은 그 일에마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악운은 계속됐다. 나중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회사가 재부도나자 회사채무보증인에서 빠지지 않았던 나는 그 빚마저도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악운까지 겹쳤다.

한 때는 내연녀를 찾아가 인간적으로 하소연하면 돌아살까 하는 마음에 목포까지

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킬 능력을 제게 주세요"라고 간절히 희망하며 멀리 칠원의 심원사까지 기도를 다녔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불행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몸도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셨다. 어머니 장례식 때에는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49재를 지내고 난 후에는 내내 남편과 나,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그 즈음에 목포에 있는 어느 절의 스님이 날 찾아왔다. 스님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자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만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053)964-0858
휴대폰: 011-804-1748

제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 기초반: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 중급반: 각종 재의식(사물다루는 법)
- ◆ 고급반: 바라 및 승무작법

기 간: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 시: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진주 아파트 옆)

연락처: 055)745-8419

쉽함 영남 범음·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과
강 사 원 명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기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규칙: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기공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애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 경추: 편두통, 불면증, 신경과민, 안성근, 뒷목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붓는것
- 흉추: 심장, 폐, 간장, 위장, 신장, 비장, 위장질환, 소장
- 요추: 변비, 요통, 관절통,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 신경: 좌골신경통, 전립선, 생식기계통
- 미리: 척추, 자궁, 꼬리뼈의 통증

특전 속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종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인명)

수련안내

- 기 간: 2006년 10월 31일부터
- 주 간 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본 협회(충본관)
- 수련비용: 40만원(속성반)
-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계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딱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치료법 카이로프랙틱, 명상 혈문어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랙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